

01 교회소식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이 세상 육의 것이 일체 가미되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 만민찬양을 통해 성도들은 마음이 변화되는 재창조의 권능을 체험하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누구든지 사랑과 선, 빛 자체이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함의 증거를 내보이면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03 기획특집

성경을 통해 본 '변개하는 마음'

만일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여 쉽게 변개한다면 믿음의 역사가 체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영적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다.

04 간증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나..."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고 새 삶을 얻은 케냐 레지나 성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참된 종의 길로 인도받은 이다희 전도사 간증.

만민뉴스

제723호 2016년 1월 3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힘과 티가 없는 찬양이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다

MANMIN 주님 생각

Copyright © 2009.2.15 Administered by Manmin Central Church.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이삭야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2007년 7월부터 3년간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스라엘 선교가 진행되던 2009년 2월 15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풀 한 포기, 돌 하나에 남아 있는 주님의 자취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선율과 가사를 주셨다. 이 곡이 바로 '주님 생각'으로, 성도들은 이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사역하시던 때를 생각하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 사랑을 마음 가득히 채우고 있다.

전 세계 만민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만민찬양 7주년 맞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찬양을 매우 기뻐하신다. 그러나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깨끗하고 순수한 찬양을 찾아보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2009년 2월 3일부터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아름다운 곡과 가사를 주기 시작하셨다.

이는 신명기 31장 19-2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명심해 지켜 행하도록 모세 선지자를 통해 노래를 지어 주신 것과 같다. 이처럼 만민찬양은 마지막 때 만민중앙교회를 통해 전 세계 만민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현재까지 주신 '만민찬양'은 281곡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으며, 짧은 곡 안에서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적인 요소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또한 발라드풍, 뮤지컬풍의 극음악, 성탄절기용

음악, 무용음악, 국악풍, 동요풍, 성가풍, 오케스트라용 연주곡, GCN 방송을 위한 로고송, 프로그램 시그널 송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전 세계 1만여 자협력교회의 요청으로 예능위원회에서는 만민찬양 악보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하여 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 하단 만민찬양 배너를 클릭하면 즉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GCN 방송의 「내 마음의 찬양」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곡을 소개하고 있으며, 만민찬양 중 일부를 앨범으로 제작해 현재 5집까지 나와 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만민찬양'은 신앙인의 참된 소망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주제들이 많아 각종 예배와 기도 모임 시에 즐겨 불리고 있다.

또한 힘과 티가 없는 만민찬양은 전 세계 만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아름다운 천국 소망과 더불어 마음을 정화시키고 있다. 만민찬양을 부를 때 마음에 평안과 감동이 임하고 어둠이 물러가며 회개와 치료, 문제가 해결되는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빅터 오디암보 형제는 "만민찬양

은 제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해 주고 하나님, 주님, 목자의 마음을 느끼게 해 줍니다. 찬양을 부르다 보면 찬란한 천국이 연상되고, 특히 '마음'이라는 곡을 부를 때는 제 마음이 넓어지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고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선천성 농아였던 태국 치앙라이만민교회의 와리판 녹색 성도는 "저는 만민찬양 '앞으로'를 찬양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귀에서 찬양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귀가 열려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하였다.

네팔만민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제안으로 만민찬양을 한국어로 부르고 있는데, 한국어 가사를 네팔어로 표기하는 하늘 와이바 형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는 만민찬양의 모든 가사가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부를 때마다 회개의 은혜가 임해 눈물을 흘리지요. 만민찬양의 네팔어 표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새로운 일자리를 얻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

이처럼 만민찬양을 사랑하는 해외 성도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인도 타밀어와 힌디어, 불어, 필리핀 따갈로그어, 태국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보급되었으며, 신규 언어들로도 번역해 보급할 예정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3)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은 물론 해와 달과 별, 풀과 나무와 새, 짐승과 물고기도 지음받았으며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요.

2.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과는 맞지 않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창조의 증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마다 눈과 귀가 두 개이고, 코는 하나에 콧구멍은 두 개이지요. 육지의 짐승은 물론, 새와 바다의 물고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리의 특성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구조와 위치가 거의 동일합니다. 바로 창조주가 계시며 창조주가 한 분이라는 증거가 되지요.

이 외에도 자연과 우주를 살펴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많은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롬 1:20).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으로서도 도무지 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권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의 운행이 멈추거나 강물의 흐름이 멈추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가 하면 각종 병들이 치료되는 등 사람으로서 상상 못할 권능의 역사들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 동일하게 나타나며, 우리 교회는 개척 이후 끊임없는 권능의 역사들로 하나님을 증거해 왔습니다.

3.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는 치료의 역사입니다. 각종 암을 비롯하여 결핵, 중풍, 뇌성마비, 디스크, 관절염, 백혈병, 에이즈 등이 치료되는 것은 물론 불치병, 난치병도 믿음으로 온전케 되었지요.

또한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몰려가며, 일어나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일어나 걷고 뛰며, 화상을 깨끗이 치료받고, 뇌출혈이나 급체,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해 의식이 없던

사람들이 깨어난 경우도 허다합니다. 결혼 후 수년 동안 불임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잉태의 축복을 받아 출산하는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눈과 귀와 입이 열려 보고 들으며 말할 수 있게 되었지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7년 동안 두 눈만 빼고는 성한 데가 없어서 병 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74년 봄, 하나님을 만난 순간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일시에 치료받은 것입니다. 이후 저와 가족은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을 일이 없었지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은 치료 역사만이 아닙니다. 역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기도하니 즉시 멈추거나 따가운 햇빛이 내리쬐릴 때 구름이 몰려와 가려 주는 등 천기까지도 믿음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성도님들은 무수히 체험하였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제가 단에서 전체 기도만 해 주어도 많은 사람이 응답받아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사진이나 이름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제게 기도받은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어도(행 19:11-12) 시공을 초월하여 권능이 나타나지요.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4.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성경상 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증거들을 내보임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정받았지요. 그는 아람 나라의 존귀한 장군으로 하나님 권능을 행하는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만나 주지도 않고 다만 시종을 보내어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전해 줄 뿐이었지요. 나아만은 처음에 무척 기분이 상했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니 일단 순종하여 강물에 일곱 번 몸을 담갔습니다.

그 결과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지요. 여기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물 곧 하나님 말씀에 죄를 씻음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곱은 완전수이므로 온전히 사함받은 것을 뜻하지요.

솔로몬 왕은 정성 다해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함으로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 물질이 들어갑니다. 정녕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도무지 이런 정성을 내보일 수 없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솔로몬의 소원대로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와 장수의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겸비함과 변함없는 믿음의 간구를 통해 응답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 달라고 간구하는 여인에게 응답을커녕 그 여인을 개에 비유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기분이 상해 돌아갔을 텐데 이 여인은 더 겸비하게 매달리니 결국 딸이 치료를 받았지요(마 15:21~28).

이 밖에도 믿음의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응답받을 사람이라면 기쁨과 감사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으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니 나도 빛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서 선이시니 나도 선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며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기뻐하시며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함을 기뻐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으로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믿음을 소유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니 기도해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기 어렵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과 선,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의 저자이십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주관하여 성경을 기록케 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며 세상 끝 날에 심판주가 되십니다. 사람이 상상으로 지어내거나 손으로 조각한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참 신이시며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시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 권능으로 하늘과 땅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의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신실하신 하나님과 ‘변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다(약 1:17 ; 신 7:9 ; 민 23:19). 반면에 많은 사람이 한 번 정한 일이나 처음 가진 마음을 쉽게 변개한다. 이는 자신의 유익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간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변개하는 마음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어렵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가도 쏟아 버림으로 영적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신앙 자체가 변개될 때는 자칫 구원조차 받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교훈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수차례 약속을 반복한

◆ 바로 왕

1

애굽 왕 바로는 변개하는 마음으로 인해 열 재앙을 만났고, 끝내 자신과 애굽 군대가 한꺼번에 홍해에 수장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마음이 강박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을 뿐 아니라 수차례 하나님 뜻을 전한 모세와의 약속을 반복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를 볼 때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함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정녕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에 합당한 행함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한다(잠 8:13). 그리할 때에 어떤 시험이 와도 변개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왕의 권세가 주어지니 겸손함이 사라지고 교만해진

◆ 사울 왕

2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스스로를 지극히 낮추었고, 왕으로 추대되었을 당시만 해도 수줍어 몸을 숨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는 교만해져 끝내 악신에게 시달렸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만다(잠 15:10, 16:18).



이처럼 직분이 주어지면 순종하고 섬기던 예전 모습은 사라지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지시하며 명령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전에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상급 쌓을 기회를 주시다니.’ 하며 즐겨 순종했는데, 이제는 ‘왜 나만 시키나?’ 하며 불평불만 한다면 스스로 점검하여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이 변개하여 사람을 의지한

◆ 아사 왕

3

아사 왕은 한때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상 숭배를 근절함은 물론, 우상을 숭배한 어머니에게 태후의 위를 폐해 버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모습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하여 결국 발에 중한 병이 들어 2년 만에 죽게 된다(대하 14~16장).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2년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으니 더 이상 지켜 주실 수 없었던 것이다(습 1:6).



이처럼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했던 마음이 변개하여 다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다시 질병이 틈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변개함이 없이 끝까지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충성한다 했지만 자신의 감정과 뜻을 좇음으로 결국 반역한

◆ 요압 장군

4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과정에서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다. 그러나 다윗의 뜻을 헤아려 섬기기보다는 사사로운 감정과 자기 의를 앞세워 자신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들의 피를 까닭 없이 흘려 죽게 하는 등 다윗을 어렵게 만들었다(삼하 3:27~39). 결국 요압은 반역을 일으켜 죽임을 당하고 만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음지라도 믿음에서 떠난다면 하늘의 상급이 사라질 뿐 아니라 구원받기도 어렵다. 혹여 의무감이나 습관을 좇아 대충 사명을 감당하거나 힘들어한다면 이 또한 마음이 변개했다는 증거이다. 더 심해지면 사명까지 놓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으므로 소망 가운데 직분받기를 사모할 뿐 아니라 맡은 사명에 충성함으로써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전 15:58 ; 계 3:11).

재물에 눈이 어두워 서원한 것을 변개하여 저주받은

◆ 아나니아와 삽비라

5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초대 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서원했지만,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 일부만 드리다가 사도 베드로의 책망과 함께 혼이 떠나 죽는 사건이 나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 하지 말라 하고, 해로우지라도 변치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다. 또한 더 좋은 것으로 바꿔 드리는 것조차 허락지 않으셨다(신 23:21~23 ; 시 15:4 ; 레 27:10 ; 전 5:6). 이처럼 변개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신속히 이행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기 바란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고 유익이 안 되니 변개하여 멸망으로 간

◆ 가롯 유다

6

가롯 유다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고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겼다.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행 1:18).



그러나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마음의 할례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면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모든 말씀이 믿어진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행하느냐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의 향을 올려 드리느냐에 따라 그 응답과 축복이 달라진다.

<p>FEBRUARY</p> <p>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6.1.31~2.6</p>	<p>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국 6-10 ■ 사랑장 2-6 ■ 믿음의 분량 4-8 ■ 3차 영혼육 12-14 ■ 공부 잘하는 비결 1 ■ 요한계시록 강해 8-13 ■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1-3 	<p>GCN TV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시행하리니 12-14 (이수진 목사) ■ 의와 틀 속에 악 (이미경 목사) ■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희선 목사) ■ 용기 강해 7 (신동초 목사) ■ 열제왕 21 (정규영 목사) ■ 자기를 부인하자 (조수열 목사) ■ 목자의 공간 2 (이해천 목사) 	<p>예능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게) 8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45 ■ 내 마음의 찬양 26 ■ 창조와 과학 21 ■ English 13 ■ 모두 드려요 42 ■ 뷰티풀 라이프 11 ■ 즐거운 요리 5 ■ 흥겨운 소리 9 ■ 옛날 옛적에 5 ■ 플로리스트 14 	<p>해외성회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연합대성회 1 ■ 믿음으로 걸은 길 27 ■ 회상 [시즌2] 9 <p>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p>
---	---	--	--	--

“손수건 기도로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았어요”

레지나 남부라 성도 (44세,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2010년 10월,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있다가 6개월 만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1년 3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당뇨병과 빈혈, 고혈압이 와서 계속 병원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해야 했지요. 그래도 여전히 온몸은 아팠고, 오랫동안 서 있거나 걸을 수 없었으며, 제대로 먹지 못해 86kg이었던 체중이 40kg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8일 주일 아침의 일입니다. 이웃이 교회에서 손수건(행 19:11~12) 집회가 있는데, 그곳에 가

서 기도를 받으면 나올 수 있으니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말의 희망을 안고 아픈 몸을 이끌고 나이로비만민교회에 갔습니다. 처음 교회에 갔는데 매우 생기 있고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무언가 뜨겁고 사랑이 넘쳤으며 사람들의 모습도 행복해 보였지요.

집회가 시작되자 정명호 담임목사님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기도받기 전에 먼저 죄를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자존심으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을 회개하였

습니다. 그 뒤 정 목사님은 한국 만민중앙교회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손수건을 소개하며 믿음으로 기도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기도해 주시자 그 순간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많이 흘렸고, 온몸의 통증이 사라짐은 물론 위로부터 힘이 새롭게 주어지는 것을 느꼈지요.

이제는 제 건강이 회복되어 병원이나 약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청년선교회, 학생주일학교 임원들과 함께



▲ 이다희 전도사(아래 왼쪽)의 아버지 이석철 장로는 남산교회 부회장과 학생주일학교 부장, 어머니 전재남 권사는 여선교회 총무와 권사회 회장, 언니 이지희 집사는 기관장과 GCN방송 직원으로 충성하고 있다.

“참된 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다희 전도사 (29세, 구미만민교회)

저희 부모님은 모두 교편을 잡고 계셨기에 첫발을 났을 뒤편 돌쩌도 빨리 낳아 한꺼번에 육아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그즈음 마산만민교회 부흥성회가 열렸는데, 어머니는 강사로 오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응답받겠다는 믿음이 와서 그대로 행하셨고, 그 믿음대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1997년 12월, 구미로 이사하면서 구미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에는 극심한 아토피성 피부염을 무안단물과 당회장님의 기도로 치료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예배 시간이나 다니엘철야 기도회 때 졸음에 빠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머니에게 혼나는 날이 많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무섭고 힘든 분으로 마음에 와 닿았으며 제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시험을 치른 후에는 진로문제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뚜렷한 계획도 없고, 모든 것이 막연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면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3일 금식을 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신학교에 원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2007년, 신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3일 금식 7번을 연달아 하며 세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교수님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깨우쳐가니 하나님은 어느새 제게 좋으신 아버지로 다가오셨습니다. 수업을 듣다가 감동이 되어 눈물

을 흘리고 주체가 안 돼 화장실에서 울기도 하였지요. 신학교에서 매년 개최하는 총회장배 설교대회에서 대상 한 번, 금상 두 번을 수상하는 은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2년 12월, 제가 얼마나 주의 종으로서 부족하고 자격 미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회개 금식을 하고 이어 3일 금식을 하면서 참된 종이 되고자 매진하였습니다. 말씀 무장과 작정 기도, 금식을 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2014년 9월, 가족과 이희진 목사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 종의 기본 자질과 함께 대전만민교회가 말씀퀴즈대회 본선에 참여하여 당회장님께 기쁨이 된 일을 말씀해 주셨지요. 저는 최재수 담임목사님의 권면으로 매년 대회를 준비한다곤 하였지만 본선 진출을 못했었기에 그것을 확실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결단력, 인내력, 집중력, 성실함 등 제게 부족한 분야들을 채울 수 있으니 능히 영의 마음도 이룰 수 있겠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15년 9월, 말씀퀴즈대회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채워야 할 분야를 주관하셔서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이끌어 주셨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12월에 영의 마음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일꾼이 되어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여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현재 구미만민교회 부교역자로서 청년선교회, 학생주일학교 지도교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참된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자책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명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톨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19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2층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202-8480, 010-8331-1136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635-9103, 010-9458-3922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